

세네갈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

2015. 3.

I. 일반개황	1
II. 경제동향	2
III. 정치·사회동향	7
IV. 국제신인도	9
V. 종합의견	11

I. 일반개황

면적	197천 km ²	G D P	159억 달러 (2014년)
인구	13.6백만 명 (2014년)	1 인 당 GDP	1,092달러 (2014년)
정치체제	공화제 (대통령중심제)	통화단위	CFA Franc (CFA)
대외정책	비동맹 중립	환율(달러당)	493.6 (2014년)

- 아프리카 서북부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세네갈은 감비아를 둘러싼 국토 형태로 한반도 크기의 국토를 보유하고 있음. 민족은 월로프족, 세렐레족, 풀라니족 등 흑인이 대다수이며 국민 대부분이 이슬람교를 믿고 있음.
- 아프리카 대륙 최서단에 위치한 지리적 입지를 활용하여 서부 아프리카의 물류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으나, 최빈국 중 하나로 다른 아프리카 국가와 달리 천연자원이 없고 경제성장을 이끌 뚜렷한 산업분야가 없어 경제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.
- 비동맹 중립의 외교정책을 펼치고 있으며, 서방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. 프랑스공동체의 회원국으로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며, 프랑스와 공동방위협정을 체결하였음.
- 2012년 대선에서 Macky Sall 현 대통령이 승리하며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는 등 국제사회로부터 아프리카 민주화의 모범국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.

II. 경제동향

1. 국내경제

□ 에너지, 광업, 인프라 투자 확대로 경제성장세 유지 전망

- 국가개발계획에 따른 농업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로 인해 2011년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2014년에도 4.4%의 경제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.
- 연 7%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겠다는 현 정부의 목표는 인프라 부족, 세계 경기침체 지속 등으로 미루어볼 때 단기적으로 비현실적이나, 에너지, 인프라, 광업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 및 민간 투자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에도 경제성장세는 유지될 전망이다.
- 전력 공급의 안정성 개선과 인광석 생산량 회복에 따른 산업생산량 증대, 금광 개발에 따른 광업 부문 성장, 수도 Dakar의 항공·해운 물류 인프라 확충에 따른 서비스 부문 성장이 기대됨.

□ 재정수지 적자는 예산 감축, 보조금 규모 축소 등으로 점차 개선 전망

- 공공 부문의 임금인상 억제와 예산 감축 등으로 2014년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GDP 대비 5.2%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나, IMF가 세네갈 정부에 제시한 목표치(4.0%)보다는 높은 수치임.
- 2015년에는 정부의 총지출 규모 감축, 국제 식량가격 하락세로 인한 보조금 지출규모 축소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GDP 대비 4.5%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.

□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보조금 축소, 세파프랑 약세 등으로 인해 상승 전망

- 주택 임대료 상한제 도입, 환율 안정, 국제 상품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2014년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0.5% 하락한 것으로 추정됨.

- 2015년에는 저유가에 따른 국제 상품가격 하락세에도 불구하고, 세파프랑 (CFA Franc)의 가치가 달러 대비 9% 가까이 하락하며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1.5%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.
- 서아프리카 프랑스어권 국가들의 공통 화폐인 세파프랑은 서아프리카 중앙은행(BCEAO)에 의해 결정되므로, 해당 통화 사용국가들은 통화정책 운용에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음.

<표 1> 주요 국내경제 지표

단위: %

구 분	2011	2012	2013	2014 ^o	2015 ^f
경제성장률	2.1	3.5	4.0	4.4	4.6
재정수지 / GDP	-6.7	-5.9	-5.6	-5.2	-4.5
소비자물가상승률	3.4	1.4	0.7	-0.5	1.5

자료: IMF, EIU.

2. 경제 구조 및 정책

가. 구조적 취약성

□ 경제성장 동력이 되는 산업의 부재가 경제발전에 걸림돌

- 서비스 부문은 2013년 기준 GDP의 62.4%를 차지하고 있으나, 경쟁력 있는 분야가 없고 내수시장이 협소하여 성장에 어려움이 있음.
- 제조업 부문(GDP의 22.7%)도 인프라 부족으로 성장에 한계가 있음. 또한 전체 근로자의 약 70% 이상이 종사하는 농업 부문(GDP의 14.9%)은 관개시설 부족으로 기후변화에 취약하여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어려움.

□ 열악한 인프라, 낮은 보건 및 초등교육 수준이 성장의 장애물로 작용

- 세계경제포럼(WEF)의 2013-14년 글로벌 경쟁력 지수(GCI)에 따르면, 세네갈의 인프라 수준은 144개국 중 112위(도로 92위, 항공 94위, 전기 공급 111위, 전화 117위)로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음.

- 글로벌 경쟁력 지수에 따르면 세네갈의 보건 및 초등교육 수준은 148개국 중 131위를 기록하였고, 유엔개발계획(UNDP)이 발표한 세네갈의 인간개발지수(HDI)는 185개국 중 163위를 기록하는 등 경제성장을 위한 고급인력 양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.

나. 성장 잠재력

□ 수도 Dakar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물류 허브로 부상 중

- 육상 교통수단은 낙후되어 있으나, WEF의 2014-15년 글로벌 경쟁력 지수에 따르면 항구시설은 144개국 중 58위로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음.
- Dakar 항구는 깊은 수심과 아프리카 최서단에 위치하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물류 허브로 급성장하고 있으며, Dakar 공항은 서방 국가들과 아프리카 국가들을 연결하는 허브 공항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.
 - Dakar에서 40km 떨어진 Diass 지역에 국제공항이 추가 건설 중임.

다. 정책성과

□ 저성장, 빈곤해결을 위한 국가경제사회발전전략 시행

- 정부는 ①경제구조 변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고성장, ②인적자원 개발과 사회안전망 구축, ③정부 지배력 강화, 평화, 안보 보장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국가경제사회발전전략(Plan Senegal Emergent: PSE)을 추진하여, 세네갈을 향후 서부 아프리카 지역의 허브로 변모시키고자 함.
 - 동 전략은 경제구조 개혁을 통한 외국인투자 유치와 민간투자 확대를 구상하고 있으며, 인적자원 및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위한 공공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지출 제한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음.
 - 동 전략의 구체적인 목표로 2019년까지 연 7%의 경제성장률 달성 및 2035년까지 신흥경제국 지위 도달을 제시하였으며, 신규 사업 투자를 위해 2014년 7월 5억 달러 규모의 유로본드를 발행하는 한편 AfDB,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재원을 마련하고 있음.

□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환경 개선 추진

- 세네갈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진흥청을 설립하고 투자자에게 One-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.
- 또한 재정개혁에서 토지소유권 및 지적재산권까지 포괄하는 17개 항목의 투자환경 개혁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며, 재외국민의 역할을 중시하여 재외국민의 국내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있음.

□ 부패척결을 위한 고강도 개혁 추진

- Sall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운 부패척결을 위해 전직 장관, 정부 및 정부 산하기관 주도의 프로젝트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59개의 공공기관을 폐쇄하는 등 고강도 개혁을 추진 중임.
- Wade 前대통령 정부 시절 수립된 2012~15년 중 투자규모 15억 달러의 에너지 개발계획도 대표적인 감사 대상으로 꼽히고 있음.
- 이러한 개혁에 대한 결과,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부패인식지수에서 세네갈은 2011년 182개국 중 112위였으나 2014년 175개국 중 69위를 기록하였고, 부패척결에 따른 외국인투자자의 신뢰 획득으로 FDI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.

3. 대외거래

□ 광업 부문의 성장, 농업생산 개선, 수입물가 하락으로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축소 전망

- 뚜렷한 수출품목이 없고, 서비스 산업의 GDP 비중이 높은 경제구조로 인해 생필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함에 따라 대규모 상품수지 적자가 발생하여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로 이어지고 있음.
- 그러나, 국제 상품가격의 하락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광업 부문의 성장, 농업생산의 개선으로 인한 수출 증대에 힘입어 2014년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GDP 대비 9.6%로 전년(10.5%) 대비 개선된 것으로 추정되며, 2015년에도 7.3%로 개선될 전망이다.

<표 2> 주요 대외거래 지표

단위: 백만 달러, %

구분	2011	2012	2013	2014 ^o	2015 ^t
경 상 수 지	-1,151	-1,476	-1,598	-1,471	-1,080
경 상 수 지 / G D P	-8.0	-10.5	-10.5	-9.6	-7.3
상 품 수 지	-2,508	-2,877	-3,135	-3,015	-2,705
수 출	2,621	2,746	2,563	2,580	2,428
수 입	-5,129	-5,624	-5,698	-5,595	-5,134
외 환 보 유 액	1,946	2,100	2,200	1,763	-
총 외 채 잔 액	7,325	9,036	10,771	11,562	12,932
총 외 채 잔 액 / G D P	53.5	63.1	70.5	72.8	76.7
D S R	12.9	7.4	7.8	8.7	6.1

자료: IMF, EIU, OECD.

□ 경상수지 적자에 따른 외환보유액 감소 전망

- 민간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 되어 외환보유액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.

□ 재정수지 적자 보전 및 경제개발을 위한 외채규모 증가 전망

- 재정수지 적자 보전 및 경제개발을 위한 해외차입으로 총외채잔액은 지속 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. 2014년 GDP 대비 총외채잔액은 전년 대비 7.4% 포인트 상승한 70.5%로 추정되며, 2015년에는 72.8%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.

Ⅲ. 정치·사회동향

1. 정치안정

□ 2014년 지방선거 패배에 따른 총리 해임

- 2014년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공화연맹당(APR)은 Macky Sall 대통령의 선거구인 Grand Yoff 지역을 포함한 주요 지역에서 패배함.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 국민이 Sall 대통령의 현 정책에 대해 실망하고 있음을 확인 하는 계기가 됨.

- 그러나, 2014년 9월 38명의 지역단체장들이 APR에 입당함에 따라 Sall 대통령은 2017년 대선에서의 재선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.

- Sall 대통령은 민심을 수습하고 경제구조 다각화와 부패척결을 가속화하기 위해 총리를 해임하는 등 내각을 개각함.
- 2014년 4월 대선 패배 후 프랑스에서 지내온 Abdoulaye Wade 前대통령의 귀국이 환대받고, 그의 아들이며 부패혐의로 투옥된 Karim Wade 前장관의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리는 등 전 집권당인 세네갈민주당(PDS)의 정치 세력이 확대되고 있으나, 현 집권 체제에 대해 큰 위협으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.

2. 사회안정 및 소요/사태

□ Casamance 반군의 테러 활동 지속이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

- 1982년 남부 Casamance 지역의 기독교계 세력이 동 지역의 분리 독립을 주장하며 무장 반군조직인 Casamance 민주세력운동(MFDC)을 결성하여 정부에 대항하고 있음.
- 2005년에 반군과 평화협정이 체결되면서 반군세력의 대부분이 협정 이행에 참가하였으나, 참가하지 않은 반군세력이 현재까지 산발적으로 테러 활동을 지속하고 있음.
- 현 정부는 반군과의 협상에 적극적이나, Casamance 지역은 내전으로 인한 피해, 경제적 낙후 등으로 인해 앞으로도 정치·경제적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.

□ 빈곤과 생활비 상승에 대한 국민 불만 고조

- 전체 국민의 46%가 빈곤선 이하의 생활수준에 머물러 있고 수도와 지역간 빈부 격차가 큰 반면, 경제성장으로 생활비가 상승함에 따라 국민들의 불만이 점차 고조되고 있음.
- 정부는 생활비 안정을 약속하며 2014년 주택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하였고 짧은 2017년까지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들에게 저가에 공급한다는 목표를 설정함. 정부의 사회적 안정에 대한 관심으로 소요사태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.

3. 국제 관계

□ 지역통합에 적극적이거나, 일부 국가와 불편한 상황 유지

- 세네갈은 아프리카 연합(AU), 사헬-사하라 국가 공동체(CEN-SAD) 등의 회원국으로 초대 Leopold Senghor 대통령 당시부터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수행해 왔으며, 서부 아프리카 경제통화연맹(UEMOA)과 서부 아프리카 경제공동체(ECOWAS)의 회원국으로 지역통합에 적극적임.
- 최근에도 말리 내 이슬람 무장단체 진압을 위한 UN 평화유지군에 병력을 파견하고 에볼라 확산 방지에 노력하며 역내 사회적 안정에 기여함.
- MFDC 반군이 같은 부족인 기니비소 주민들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기니비소와의 관계가 불편한 상태였으나, 주민들의 지원이 중단됐다는 소식과 함께 기니비소의 새 정부가 反분리주의 정책을 지지함에 따라 양국간 관계가 일부 개선됨.
- 세네갈 국토 내에 존재하는 나라인 감비아와는 1982년 2월 “세네감비아 국가연합 협정”을 체결하였으나 1989년 9월 해체된 바 있음.
- EU의 유럽개발기금(EDF)의 지원으로 감비아의 Basse 지방과 세네갈의 Velingara 지방을 연결하는 도로 건설 프로젝트가 조만간 완공될 예정이며, 동 도로의 개통으로 양국간 교역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.

□ 미국, 중국과의 경제-외교적 관계 강화 노력

- 세네갈 정부는 Wade 前대통령 재임 중 이란, 베네수엘라 등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국가들에의 접근으로 인해 소원해진 미국과의 관계 회복을 추진 중임.
- 한편, Sall 대통령은 2014년 2월 중국을 방문, 시진핑 국가주석 등과 만나 양국간 협력을 논의하였음.
- 중국은 세네갈로부터 농산물 수입을 늘리는 한편, 플랜테이션과 농산물 가공 등 기업형 농경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하고 중국 기업들의 대 세네갈 투자를 장려하고 있음.

IV. 국제신인도

1. 외채상환태도

□ 외채 탕감 및 리스케줄링 경험 보유

- 고채무저소득국(HIPC) 이니셔티브에 따라 2004년 8.5억 달러의 공적외채를 탕감받았고, 2005년에도 다자간 채무탕감 이니셔티브(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: MDRI)의 체결로 24.6억 달러의 채무를 탕감받는 등 외채탕감 및 리스케줄링 경험이 있음.
- 2014년 9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외채규모는 단기 2,960만 달러, 중장기 1억 4,920만 달러 등 총 1억 7,880만 달러이며, 이중 1,120만 달러가 연체 중이나 IMF 및 세계은행 앞 연체는 없음.

□ 외채규모는 증가 추세이나 관리 가능한 수준

- 쌍둥이 적자로 인한 외채규모 증가로 2014년 기준 GDP 대비 총외채 잔액은 72.8%이며, 외환보유액 역시 전년대비 약 20% 감소하는 등 외채 상환능력은 다소 취약함.
- 그러나 2013년 말 기준 외채의 89.7%가 양허성 차관이며, D.S.R. 역시 2012년 이후 7~8%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단기외채상환능력은 양호한 것으로 보임.

2. 국제시장평가

□ OECD 6등급, S&P B+, Moody's B1 등급 유지

- OECD는 2014년 10월 개최된 CRE(국가위험평가 전문가) 회의에서 세네갈의 국가위험도 등급을 종전과 동일하게 6등급으로 평가하였음.
- S&P는 2000년 신규로 B+ 등급을 부여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으며, Moody's는 2011년 B1 등급을 부여하여 등급 변동 없이 유지 중임. S&P는 2013년 신용전망을 Negative에서 Stable로 상향 조정하였고, Moody's는 2014년 신용전망을 Stable에서 Positive로 상향 조정함.

<표 3>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

평가기관	최근 평가 등급	종전 평가 등급
수출입은행	D2* (2013. 5)	-
OECD	6 (2014.10)	6 (2013. 9)
S&P	B+ (2013. 7)	B+ (2010. 5)
Moody's	B1 (2014.11)	B1 (2011. 3)

* OECD 등급 원용

3. 우리나라와의 관계

- 국교수립 : 1962년 10월 19일 (북한과는 1972년 9월 11일 수교)
- 주요협정 : 문화·경제·기술협력협정('80), 투자증진 및 보호협정('85),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('08)
- 교역규모
 -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 세네갈 교역규모는 1.8억 달러로 수출은 석유 제품,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등을 중심으로 1.3억 달러, 수입은 어류, 수산가공품을 중심으로 5,304만 달러를 기록함.

<표 4> 한·세네갈 교역 규모

단위: 천 달러

구 분	2012	2013	2014	주요 품목
수 출	57,280	75,291	127,125	석유제품,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등
수 입	39,629	61,813	53,047	어류, 수산가공품 등

자료: 한국무역협회.

양국 간 해외직접투자 현황

- 우리나라의 대 세네갈 주요 투자업종은 제조업, 도매 및 소매업, 부동산업 순이며 투자실적은 2014년 말 기준 신규법인수 총 12건, 투자금액 6백만 달러(누계기준)를 기록하고 있음.

V. 종합 의견

- 세네갈은 경제성장 동력이 되는 산업의 부재로 경제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, 에너지, 광업, 인프라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 및 민간 투자의 증가로 2014년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4.4%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한 것으로 추정됨.
- 뚜렷한 수출품목이 없고 대부분의 생필품을 수입에 의존함에 따라 상품수지 적자가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로 이어지고 있음. 그러나, 2014년에는 광업 부문의 성장, 수입물가의 하락, 농업생산의 개선으로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추정됨.
- Casamance 반군의 테러 활동, 인근 국가들과의 정치적 문제로 사회불안 요인이 있으나, 현재 심각한 수준의 시위나 사태를 일으킬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임.
-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로 매년 외채잔액 규모가 증가하여 GDP 대비 과중한 외채부담으로 채무상환능력은 다소 취약함. 그러나, 낮은 D.S.R.과 양허성 차관 위주의 외채를 고려할 때 단기 외채상환능력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.

조사역 임민교(☎02-3779-5727)
E-mail : ymg@koreaexim.go.kr